정원 만들고 배치 바꾸니 영구임대아파트가 관광명소로

도시 건축 품격을 높이자

〈3〉가장 취약한 곳부터 매력있게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높이 제한하고 독특한 디자인 입혀

공영주택 획일성 탈피 새모델 창출

구마모토가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공공영구임대아파트였다. 대부분의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디자인이 획일적인 4각형의 고층 건물이라는 점, 영세민들에게 주거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가장 취약한 곳부터 디자인을 쇄신하고자 했던 전문가 의견 등이 잇따른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공공영구임대아파트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만 강조, 좁은 공간에 다수를 수용하는 방식도 과감히 개선했다.

중앙정원은 물론 놀이터, 꽃밭, 공동시설 등을 곳곳에 배치하고 건물 높이를 7층 이하로 낮췄다. 주변 단독주택지역과 어울리게 하면서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그 결과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관광상품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재생에도 기여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낳았다.

1989년 3월 착공해 1991년 8월 준공한 구마모토현 운영 호타쿠보 1단지가 구마모토 최초의 아트폴리스 적용 공공영구임대아파트다.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이 남향으로 획일적으로 늘어선 단지형 배치에서 벗어나 110세대가 중앙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공영주택의 디자인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꾼 작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상 5층 규모에 부지 면적은 1만1184㎡, 연면적 8753㎡, 건축면적 3562㎡ 이다. 11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1세대당 주거면적(공동면적 포함)은 약 80㎡에 이르며, 부지면적은 101.7㎡에 이른다. 최근 주민들의 요구로, 엘리베이터를 각 동에 설치하기도 했다. 당초 1개의 단지였으나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주위에 2, 3단지가 잇따라 설립됐다.

다음에 들어선 것은 구마모토시가 운영하는 신치단지다. 모두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신치단지에는 5명의 건축가가 각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A단지는 하야카와 구니히코가 설계해 지난 1991년 5월 준공했으며, 170m의 5층 건물이 양날개의 역할을 하고 그 사이 2~3층의 안뜰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배치했다. 1994년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단지를 비롯해 E단지까지 모두 3~7층으로 높이를 정하고, 가운데 공간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과 건축물을 배치한 것은 유사하다. 또 외부와 단지를 필로티나 출입구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숲, 잔디 등 자연자원도 곳곳에 들어서 수준높은 공간을 창출했다. 지진 등 재해 예방 시스템도 적용해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도 큰 피해가 없었다.

1989년 3월 착공해 1991년 8월 준공한 구마모토현 운영 호타쿠보 1단지 내부. 중앙정원을 110세대 전체가 바라보는 구조다.

구마모토시가 운영하는 신치단지는 모두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됐다. 5명의 건축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A단지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78세의 한 노인은 "처음에 입주할 때는 너무 좋아 잠을 자지 못했을 정도"라며 "지금도 만족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돼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불만"이라고 말했다.

구마모토현과 구마모토시는 노후 아트폴리스 적용 시설에 대해 수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청 건축주택국 주임주사 타지마 리호씨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의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되도록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990년 11월 준공한 구마모토 중앙경찰서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하프 미러(half mirror, 빛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하도록 만들어진 거울)를 사용해 건축물 전체를 감쌌다. 지난 2010년부터 신칸센이 다니기 시작한 구마모토역은 구마모토성의 이미지를 빌려 디자인했으며, 2016년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가설주택은 목조를 재료로 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유명건축가들이 자원봉사로 나서 디자인하기도 했다.

최근 구마모토현을 방문한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지방선거가 4차례나 있었지만 30년 동안 꾸준히 아트폴리스를 추진한 덕분에 지금의 구마모토가 있었다"며 "도시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라 마련한 정책을 연속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광주 아트폴리스의 성공 자산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내년 90주년은 북한 대표와 함께"

李총리 참석 첫 정부 주관 행사

내년 90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북한 참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이 지난 3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학생이 지켜온 정의,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주제로 펼쳐졌다.

올해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된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계 대표, 시민·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은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기에 지금부터 교육청 등이 잘 준비해서 광주·전남 지역 학교는 물론 북한의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 대표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고 밝히며 내년 90주년 행사의 북한 참가 기대를 높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즈음해 북측 학생들을 광주로 초청하는 남북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독립운동에 나섰던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후배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당시 사용했던 격문을 학생들이 낭독하는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3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된 뒤 처음 열린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롭게 발굴한 유공자 6명 중 후손이 확인된 (故)조아라·부기준·윤오례 독립지사 3인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이 총리는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학생독립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로 했다"며 "학생독립운동 참가자들을 더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이 총리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설치된 기념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제 영혼의 원점입니다'는 글을 남겼다.

또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노동훈(92) 애국지사의 집을 찾아가 국가보훈처 주관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의 1호 독립유공자 명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 교체 시기 촉각

민주당 "경질 아닌 교체" 강조

현역의원 장관 교체 대상 관측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 투톱'의 교체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는 '경질'이 아닌 '교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자칫 '문책성 경질'로 비칠 경우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소득주도 성장 논란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책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두 사람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틀을 잡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만큼 이제는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경제라인을 교체할 때가 됐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는 책임을 묻는 차원의 경질은 아니고, 일상적인 개각 차원의 검토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가 아직 '경제정책 투톱'의 교체를 공식화하지 않은 데다, 입법·예산 국회를 앞둔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후임 인사 보다는 교체 시기를 더욱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야권은 경제 정책 투톱의 교체를 '경제지표 악화 영향'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규정짓고 소득주도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를 계기로 한 개각 폭도 관심사다. 당장 두 사람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거론되는 만큼 '경제정책 투톱'의 교체가 정부 및 청와대의 인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맡고 있는 장관직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오는 2020년 총선 대비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복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초반부터 국정을 함께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동욱 기자 tuim@

www.photonicskorea.org

Photonics KOREA 2018

2018 Photonics Convergence Industry Road Show 2018

융합산업로드쇼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8. 11. 20화 ~ 21수(2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융합산업 유망기술 • 제품 로드쇼 : 11. 20 ~ 21(2일간)
- 국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11. 20 ~ 21(2일간)
- 광융합산업 발전 포럼 : 11. 20(화)
- 전력산업 광융복합 기술표준 포럼 및 공청회 : 11. 20(화)
- 광융합산업 기술확산 교류회 : 11. 20(수)
- 광융합 4차 산업혁명 마케팅 전략세미나 : 11. 21(수)
- ETRI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 11. 21(수)
- 평판형 광도파로기반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 11. 21(수)

로드쇼 Point!!

- 광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로드쇼로 **참가비 무상지원** 등 다수혜택과 실질적인 **국내외 바이어에게 홍보기회 제공**
  -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 **항공료 차등지원, 숙박 2박 100%**
    ※ 항공료지원 (최대 200만원, 계약체결시 80%, 협약체결시 70%, 현장방문 50% 차등지원), 초청인원 최대 3명(동일기업 2명)
- 국내외 바이어 25개국 150명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제공**
- **광융합산업 포럼, 광융합 4차 산업혁명 마케팅 전략세미나 및 신기술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한 **광융합 교류의 장 마련**
- **광융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홍보관 운영**
  - 광융합LED식물(허브,청경채, 바질 등) 키우기 체험, AR/VR체험, 3D프린팅 체험

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Tel. 062-605-9646 / 9647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KAPID 한국광산업진흥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